프로젝트 앰배서더

Arti



갤러리 게스트

05



Arti

갤러리 게스트

05 친구와 협업

자두 보라색 새틴 보머와 사프란색 바지를 입은 Arti는 전시회 개막 행사에서도 눈에 띕니다. 긴 연설 대신 보이숙차 시음용 소분 찻잎을 담은 케이스를 엽니다. 차의 맛이 예술에 관한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끕니다.

숙보이차 시음용 소분 찻잎

함께 마신 차

TEA.TOYS

의상 05 보기